

“제주 본향당 이야기”

- 와산 알당 -

1. 채록대상자 : 이용옥/제주 칠머리당 영등굿
2. 채록 일자 : 2017.04.24

알당은 저기 당의 자리는 지금 남아이서도 예. 저 불 부쳐 나고 뭐 해나부니까, 저기가 제국시대에도 하고 일제시대에도 하고 한다.

그 당본풀이는 또 옛날에 이 와산 개판을 송씨가 했던 해예. 개판을 송씨가 해신디, 송씨 집이 할망하고 저 어멍하고 딸하고 검질을 매려 간거라.

그 밧디 당 이신 밧디 검질매려 간 검질 매연 점심을 먹언 아지나네, 귀썰매가 곤죽곤죽 허난,

“야 큰년아, 나 이 귀썰매나 견영보라 막 7랑니가 기는 듯 하다.”

“나 독무릎더레 옰더 집서 한번 보게”

독무릎더레 영 옰더지난 귀썰매 영 견어보난 “아이고 어머니 저 양 고랑니는 어수다마는 귀 소곱에 꿇밥이 솟박 허였수다” 허난,

“경 허걸랑 꿇밥이나 허꿈 내도라” 허난, 그 새꼬랑니 새에서 영 똥견 새 속에꺼 새꼬랑니 뻥 걸로 영영 꿇밥 낸덴 허게 꿇창 썩악 건드려분거라

어머니 용심나난 “아이고 이년난 거 저년난 거 지 애미 죽으렌 꿇창 썩시는 년이 어디시니 아이고 요 벼락맛을 년아” 해연 옥이엔 한 거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. 아이겐 옥한 것이, 그냥 옥황에서 벼락 장군 벼락 스재(사자) 내려산 딸을 죽여분거라 예 벼락천 죽여부난 할머니 두일뤼 열나흘 그디서 땅을 치명 울 때, 죄없는 백성 아무 분수 몰라,

그만씩 저만씩 고른 것에 어떻 경 죄으신 백성을 벼락청 죽여집니겐 하도 울어간.

옥황상제가 어떻 허난 인간이 영 통곡소리가 남시고 해연, 옥황에서 굽어보난 아 죄으신 백성을 그냥 벼락청 죽여분거라.

계난 옥황에서 벼락 몽둥이로 견어불라 벼락줄도 견어와불라 벼락방석도 견어와 불라, 몬딱 견어와 부난 벼락장군이 옥황에 올라가야 될 거는 못 올라 가부난 이 눈미와산 땡기명 막 줄불이 났젠 합디다.

어느 집 어시 그냥. 이 날은 저집이 나고 이 날은 이집이 나고 저집은 저날이 나고 하도 줄불 나가난,

마을에선 회의를 열언. 옛날엔 읍민장 정민장 그런 분들이지 예. 이 그 당을 여기다가 한번 앉지게. 이 옆에다가 이디도 당이 이시니까 이 옆에다가 모시겐 허난, 그

당은 남자고 이 당은 여잔데, 계난 그 당을 이제 요 옆드레 왕 모실 걸로 당제사 허 멩 해신디.

하난 그담엔 머리 큰 전민장 읍민장 막 그런 사람으로 팡팡 죽어가는거라 이 마을사람들이. 계난 하도 막 자손들은 답답행 하는 차에 할머니가 상단골한테 강, 꿈에 선몽을 한 거라.

야 너희들도 남녀간에 구별이 이신디 우린들 남녀간에 구별이 없겠느냐마는, 특히나 끄끄렁 내난 혼자 못아지켄. 좌석을 갈라도랜. 경허난,

그땐 이젠 그 당은 지금 그 자리로, 벼락 쳄 죽여부러난 당으로 예 검은 당 밧디는 바로 요 아렌디 마을 아렌디.

그디 풍낭도 엄청 커 이디보다. 경 해연 이제 글로 모션, 글로 모시난 예 이 당은 일년에 세번 제의를 하는디 그 당은 일년에 네번이라, 더 큰당이라 그디가 남자당이 난.

정월 '초여드레날'은 '과세문안'하고 또 7월 초8일은 '백중제일'을 하고, 또 10월 초8일은 이젠 '시만국제일'을 하고, 또 선달 그믐날은 '개탁제일'을 하고 거기는 일년에 네 번하고 여기는 일년에 세 번하고.

계난 지금은 예 우리 시어머니가 말앙 할 때는 그런 말 엇어신디, 그냥 거느림만 알 당은, 거느림만 행, 이 당에만 다 올령 거느림만 해신디 나가 말은 후로부터 거느림만 하면 될게 아니니까

저 상에 큰 오봉에 문딱 출려온거 다 놔그녕, 남자 아무래도 남자니까 요쪽 위쪽으로 구석으로 낵 제의를 하곡 합니다게. 산신놀이 해영 예, 둠 곳엉 땡기멍 산신놀이 하고.

삼월달만. 계난 큰 제일은 삼월 한번. 일 년에서 큰 제일은 삼월 열사흘날 한 번 하니까 한번 할 때만. 나만 왕하고 제일을 못 햄주게, 당이 검구름이 떠부난 이 당 제일만 일 년에 세 번. 계 난 올 때마다 그 당 거느령 영 배꼈디로라도 잔도 내곡 예, 경 햄수다.